

# 협동글쓰기를 통한 책 만들기 지도방안과 효과

최선녀\*

|| 차례 ||

- I. 서론
- II. 협동글쓰기를 통한 책 만들기의 지도방안
- III. 협동글쓰기를 통한 책 만들기의 효과
- IV. 협동글쓰기를 통한 책 만들기의 개선방안
- V.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교육청 책쓰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협동글쓰기의 방법으로 『따로 또 같이』라는 책을 출판했던 학생 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본 연구의 제 1장에서는 협동글쓰기를 통한 책 만들기 지도방안의 필요성과 연구 방법을 소개하였다. 제 2장에서는 협동글쓰기를 통한 책 만들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도 모형을 구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도 단계를 제시하였다. 제 3장에서는 협동글쓰기를 통한 책 만들기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와 효과를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과 학부모의 설문과 교사의 관찰일지, 학부모의 관찰일지, 편집 후기를 통해 분석하였다. 제 4장은 협동글쓰기를 통한 책 만들기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 5장에서는 논의를 요약하며 마무리하였다.

주제어 : 협동글쓰기, 글쓰기, 책 만들기, 책 쓰기, 집단 스토리텔링

---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 I. 서론

21세기 현대 사회는 예술·문화 콘텐츠를 기본으로 하며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이다. 이에 발맞추어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는 2007년부터 책쓰기<sup>1)</sup>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09년에는 100개의 동아리를 선정하였고,<sup>2)</sup> 책축제를 개최하여 총 760여 권의 책을 전시하였다.<sup>3)</sup> ‘학생 저자 10만 양성’을 목표로 시작한 책쓰기 활동을 통해 이미 4만여 명의 학생 저자가 탄생했고,<sup>4)</sup> 이러한 현상은 타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책 만들기 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정하여 A4 용지 30매 이상(또는 원고지 250매 이상)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일컫는다.<sup>5)</sup> 이 교육 프로그램은 Kuhlthau의 정보탐색과정이나 Eisenberg & Berkowitz의 Big 6 Skill 등의 모델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학교 도서관 활용도를 제고하고 학생들의 주체적 정보활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었다.<sup>6)</sup>

1) 책쓰기는 글을 써서 책을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니 책 만들기라는 용어가 적합하나, 책 만들기는 북아트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구분이 쉽지 않다. 책쓰기 또한 책을 만들기 위한 글쓰기의 의미로 북아트를 포함한 개념으로 두루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책 만들기과 책쓰기를 같은 의미로 보고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저자 10만 양성을 위한 2010 독서 동시 쓰기 책쓰기 교육 기본계획』, 대구광역시 교육청, 2010.

3) 손동욱, 『우리도 어엿한 작가』, 영남일보, 2009, 12, 10.

4) 채정민, 『창의력 향상 학생 책 쓰기 활동 대구시교육청 대표브랜드 우뚝』, 매일신문, 2012, 7, 10.

5) 한준희, 『책쓰기 교육의 의의와 과정』, 2010년도 도서관 활용 직무연수, 대구 계명대학교 사범대학부설 중등교육연수원, 2010, pp.135~162.

6) 김종성, 『자기주도적 탐구학습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대구광역시교육청의 책쓰기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제41권, 2호, 2010, p.82.

책 만들기는 독서 의욕을 제고하고, 도서관 이용을 자극하고,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다. 또한 학습 능력과 태도에 대한 효과, 내면 성장 및 생활 개선 효과를 갖는다.<sup>7)</sup> 창의성 증진<sup>8)</sup>에 효과적이며, 이야기 구성 능력 및 구조 개념의 발달<sup>9)</sup>에 도움을 주며 상호작용<sup>10)</sup>을 통한 공동체 의식 형성에 도움을 준다.<sup>11)</sup>

그러나 책추제에 전시된 책을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아직 그림이나 꾸미기 위주의 북아트<sup>12)</sup> 수준이 주류를 이루고, 초·중·고 모두 각자의 글을 모아 한 권으로 묶은 정도가 대부분이다. 이는 책 만들기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책 만들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sup>13)</sup> 초등학교 교사들이 책 만들기 활동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시간 확보이고, 그 다음이 지도방법을 체득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책 만들기 활동 중 가장 어려웠던 일을 원고쓰기와 주제 정하기로 답하였는데 이는 단문의 글쓰기와는 달리 초등학생이 혼자서 책을 완성하기에는 원고 분량에 대한

7) 김종성, 앞 논문, pp.84~89.

8) 변윤희, 「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그림책 만들기 활동의 효과 연구」, 『교육학연구』, 제44호, 2006, pp.27~55.

9) 김정섭, 「또래협력이 아동의 추론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p.33~36.

10) 비고츠키는 쓰기 학습에 대한 정의를 '본질적 기술 습득이 아닌 의사소통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했다.(Dipardo & Freeman, 1988. 문혜경, 「협동학습을 통한 작문지도 방법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21 재인용)

11) 노영희·유수옥, 「스케폴딩 전략을 적용한 그림이야기책 만들기 과정에 나타난 유아의 반응」, 『유아교육학논집』, 제14권 제5호, 2010, pp.261~286.

12) 북아트는 스스로 한 권의 책을 기획하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작가가 되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책을 완성하는 활동이다. 이는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의 종이로 이루어진 글과 글에 맞는 삽화를 그리고 편집하고 제본하는 활동을 말한다. (폴 존슨, 『북아트를 통한 글쓰기』, 서울 : 아이북, 2005, p.10)

13) 김종성, 위 논문, pp.89~91.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협동글쓰기가 대안이 될 수 있다.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국어과 심화활동의 영역별 빈도를 보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이 ‘스스로 과제 선택’과 ‘동료와 협의하기’인데 협동글쓰기는 이런 취지와도 부합한다. 글쓰기를 하는 필자의 경우 고립된 필자보다는 집단 내 필자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점을 갖는다. 협동학습을 통한 글쓰기는 청중을 갖게 되며 피드백을 받게 된다. 이는 독자개념을 확대하여 자기중심성을 탈피하게 한다. 또한 협동으로 인해 글쓰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쓰기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상호 작용을 통하여 쓰기 전략의 내면화<sup>14)</sup>와 동시에 사회적 기술<sup>15)</sup>을 배우게 된다.<sup>16)</sup> 협동글쓰기를 통한 책 만들기는 협동글쓰기와 책 만들기가 갖는 장점을 두루 포괄한다. 하지만 협동글쓰기가 간접글쓰기 활동만으로 이루어질 경우는 개인의 글쓰기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글쓰기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협동글쓰기의 방법을 책 만들기에 제안하며 이는 그룹간의 단순한 협의 정도에 그치는 협동이 아니라 책 만들기의 구상에서부터 원고쓰기, 첨삭의 과정까지 함께하는 협동글쓰기와 개별글쓰기를 포함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책 만들기를 하여 『따로 또 같이』<sup>17)</sup>라는 책을 출판했

14) 협동학습 연구자들은 협동학습이 경쟁학습보다 인지적 효과가 높다고 하는데 인지 발달론에서는 비슷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근접발달영역을 완성한다는 것이고, 인지정교화론에서는 아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면서 요약함으로써 더욱 이해가 잘 된다는 이론이다.

15) 다른 구성원과의 의견충돌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언어를 통한 의견 중재를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 문제해결력을 갖게 된다.

16) 문혜경, 「협동학습을 통한 작문지도 방법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p.21~25.

17) 동행325, 『따로 또 같이』, 꿈과 희망, 2012.

던 학생 저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이 책은 집단 스토리텔링의 방식으로 저학년 5명이 쓴 동화 『동물학교가 날아왔어요』와 고학년 3명이 쓴 『시크릿 퍼즐』, 그리고 학생들의 부모가 쓴 9개의 글을 모은 책이다.<sup>18)</sup>

본 연구는 시작 당시 2학년의 경우는 2010년 12월 2일에서 2011년 11월 17일까지 23회차에 걸쳐 진행하였고, 4학년은 2010년 11월 24일부터 2011년 11월 23일까지 31회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그 구체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다.

〈표 1〉 차시별 수업 내용

저학년		고학년	
차시	내용	차시	내용
1	책 양식에 대한 협의	1~2	책 양식에 대한 협의
2	개별 원고 내용에 대한 협의	3	개별 원고 내용에 대한 협의
3	원고 개요 짜기	4	원고 개요 짜기
4	동물 학교 그림 선정	5	등장인물 정하기
5~6	동화 이어쓰기1~2	6~8	동화 이어쓰기1~3
7~14	개별 원고 쓰기1~8	9~10	동화 이어쓰기4~5/ 개별 원고 쓰기1~2
15~16	동화 이어쓰기3~4/ 개별 원고 쓰기9~10	11~17	개별 원고 쓰기3~9

18) 저학년과 고학년이 쓴 두 동화는 동화의 앞뒤 부분은 글의 구성원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동화 이어쓰기를 하는 직접협동글쓰기의 방식을 사용하고 동화의 중간 부분은 각 구성원들이 순서를 나누어 각자 이야기를 전개하는 간접협동글쓰기 방식을 채택한다. 또 본 연구는 협동글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바 개별글쓰기를 한 부모의 작품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학생들은 모두 협동을 통한 책 만들기가 처음이다. 저학년은 글쓰기를 싫어하는 남자 2명과 상상력이 풍부하고 글쓰는 속도가 빠른 여학생 1명과 아이디어 생성 속도나 글을 쓰는 속도가 느린 여학생 2명으로 구성되었다. 고학년은 창의력은 있으나 글쓰기를 싫어하는 남학생 1명과 글쓰기에 대한 관심도는 보통이며 차분한 성격의 여학생 2명으로 구성되었다.

저학년은 글의 구조가 고학년에 비해 복잡하지 않아 빨리 종료되었고, 고학년은 후반부에 가서 원고 분량을 늘이려는 욕심을 보여 수업 차이에 더욱 차이가 많이 난다.

## Ⅱ. 협동글쓰기를 통한 책 만들기의 지도방안

### 1. 협동글쓰기를 통한 책 만들기의 이해

사회구성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글쓰기는 필자의 생각을 독자에게 전달 하는 의사소통의 행위이다. 글쓰기는 독자에 대한 이해와 정서적인 공감을 바탕으로 상호 의사소통에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문제 해결의 과정<sup>19)</sup>이기도 하다. 이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고, 사고력이 증진되며, 타인에 대한 이해력이 강화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논리력과 창의력이 증진된다.<sup>20)</sup>

이러한 글쓰기는 그 방법에 따라 개별글쓰기와 협동글쓰기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협동글쓰기는 글쓰기의 전·중·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동료 협의, 동료 평가를 의미하는 쌍의의 개념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협의의 개념과 구분을 위해 이를 간접협동글쓰기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데 있어 여러 명의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글쓰기를 직접협동글쓰기로 명명하고자 한다.

북아트의 전통을 아동교육에 접목시킨 영국의 ‘어린이 북아트 프로젝트’를 주도한 사람은 폴 존슨이다.<sup>21)</sup> 그는 책 만드는 과정을 아이들의 창의적

19) 린다 플라워, 『글쓰기의 문제 해결 전략』, 동문선, 1998, p.31.

20) 오택환, 『협동 작문이 쓰기 능력과 쓰기 태도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과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p.42.

21) 폴 존슨, 앞의 책 p.12.

표현력을 이끌어내고 향상시켜가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체계화했다. 그 결과 영국에서는 책 만들기 활동이 국가 교육 과정의 일부로 채택되었고, 미국에서도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박물관의 문화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수용하여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되기도 하였다.<sup>22)</sup>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책 만들기 활동에서 개별글쓰기가 아닌 협동글쓰기의 방법을 활용하여 책 만들기를 한 소그룹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2학년, 4학년 때 책 만들기를 시작하여 다음해에 종료하였으므로 저학년과 고학년의 표본으로 삼고자 한다.

## 2. 협동글쓰기를 통한 책 만들기 교수-학습 모형과 지도 단계

협동글쓰기를 통한 책 만들기 교수-학습 모형은 글쓰기의 진행 과정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쓰기 전 단계는 계획하기 단계로 동료 협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쓰기 중 단계는 초고쓰기, 검토하기, 고쳐쓰기 단계로 다시 세분화할 수 있다. 쓰기 후 단계는 발표하기 단계로 각자의 글을 발표하고 평가와 조언을 받으며 공유하는 단계이다<sup>23)</sup>. 이를 표로 나타내면 위와 같다. 쓰기 중 단계에서 교사와 학생 영역이 점선으로 구분된 것은 교사-학생 사이의 협의가 원활하고 풍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낸다.

22) 권경미, 『북아트(Book Art)를 활용한 글쓰기 활동의 효과 연구』, 키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9.

23) 책 만들기는 책의 내용을 구성하는 글쓰기뿐 아니라 책의 구상, 편집, 삽화, 후기 등 책 만들기에 필요한 전체적인 부분을 의미하나 여기서는 협동글쓰기 부분을 중점으로 다룬다.

〈표 2〉 협동글쓰기를 통한 책 만들기 교수-  
학습 모형 O : 협동 학습, X : 개별 학습

단계	쓰기 전	쓰기 중				쓰기 후
	계획하기(O)	종류	초고쓰기(X)	검토하기(O)	고쳐쓰기(X)	발표하기(O)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이디어 생성하기</li> <li>-동료 협의</li> <li>아이디어 조직하기</li> <li>-개요 짜기</li> <li>-동료 협의</li> </ul>	직접협동글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고쓰기</li> <li>-구두 작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듣기</li> <li>-구두 첨삭</li> <li>동료평가</li> <li>교정하기</li> <li>-취사선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시쓰기</li> <li>편집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표하기</li> <li>발표평가</li> <li>-쓰기 평가</li> <li>공유하기</li> <li>-동료 반응</li> </ul>
		간접협동글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고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돌려읽기</li> <li>-모듬 초고</li> <li>동료평가</li> <li>교정하기</li> <li>-취사선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시쓰기</li> <li>편집하기</li> </ul>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 안내</li> <li>-쓰기 과제 제시</li> <li>-활동 유의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사-학생 협의</li> <li>-방향 안내, 조언 피드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사 마무리</li> <li>-첨삭</li> <li>-평가와 조언</li> </ul>

협동글쓰기의 경우 글의 전개가 협동에 의해 이루어지니 무엇보다 글쓰기를 하기 전에 협동 구성원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쓰기 전 단계에서 한 차시 수업에서 진행할 목표 분량을 정하고 동료 간의 협의를 통해 내용을 결정하고 그 내용에 알맞은 개요를 짠다. 이것이 아이디어 생성하기와 조직하기 단계이다. 이 부분이 틀어지게 되면 전체 글의 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충분히 협의하여 무리한 전개가 안 되도록 지도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협동글쓰기는 아이디어 생성과정이나 고치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간접협동 뿐 아니라 한 문장이나 한 단락씩 동화 이어쓰기와 같은 직접협동글쓰기를 포괄한다. 자신이 맡은 부분을 적어가는 간접협동글쓰기인 개별글쓰기를 포함하는 것은 협동 학습을 통한 글쓰기에 반드시 개별적 글쓰기가 포함되어야만 학습자 개개인의 글쓰기 능력 신장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sup>24)</sup>

직접협동글쓰기의 경우 한 사람이 먼저 자신이 생각하는 이야기를 구두



로 알려준다. 그 후 다른 사람들은 이에 대해 평가하고 구두 첨삭을 한다. 그러면 이야기를 전개한 학생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쓰기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팀원들이 순서를 돌려가면서 한다. 물론 내용이 애초의 계획에 어긋나게 진행될 수도 있는데 다른 구성원들은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 바로 잡아 갈 것인지를 한 사람의 구두 작문 후 투표로 바로바로 결정한다.

간접협동글쓰기의 경우는 앞서 계획하기 단계에서 개요를 짠 내용을 토대로 각 구성원이 초고쓰기를 하고 이를 동료들이 돌려 읽고 평가하고 교정하는 검토하기 단계를 거친다. 이후 초고를 다시 쓰고 편집하는 고쳐쓰기 단계를 거친다.

이처럼 협동글쓰기는 초고쓰기-들기-동료평가-교정하기-다시쓰기-편집하기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쓰기 중 단계의 전 과정에 걸쳐 방향을 안내하고 조언하고 피드백을 하는 역할을 한다.

쓰기 후 단계에서는 앞서 초고쓰기와 고쳐쓰기를 거친 원고를 발표하고 이를 평가하고 공유하는 단계이다. 개별글쓰기의 경우 글쓰기 작품이 저자만의 작품이 된다면 협동글쓰기를 통한 책 만들기의 경우 전체가 합쳐져서 하나의 동화를 구성하는 내용의 특성상 내 원고가 전체의 일부분이 되고 다른 사람의 원고가 내 이야기의 연장선이 되어 책 만들기 전 과정 즉 전체 원고에 관심을 갖고 임할 수밖에 없다.

### Ⅲ. 협동글쓰기를 통한 책 만들기 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협동글쓰기를 통한 책 만들기의 지도 결과를 그 효과에 따라 글쓰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강화, 인지적 효과와 글쓰기 능력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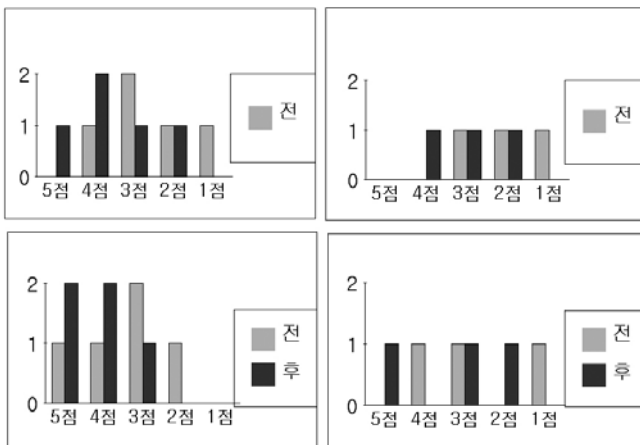
24) 성숙자, 「협동 작문의 유형과 개선점」, 『우리말연구』, 제13집, 2003, pp.176~177.

저작권 의식의 강화, 좋은 글 감식력 강화와, 역효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글쓰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강화

협동글쓰기 설문은 협동글쓰기를 통해 책 만들기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저학년 5명, 고학년 3명이다. 질문은 협동글쓰기를 통한 책 만들기를 하기 전과 후의 글쓰기 흥미도와 자신감에 대한 물음이다.

〈표 3〉 협동글쓰기 설문 검사지1(저학년/고학년)<sup>25)</sup>



설문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협동글쓰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자신감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은 그 정도가 적은 것으로 볼 때 저학년에 비해 협동글쓰기가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25) 표의 문항에 따른 점수 규정은 다음과 같다. 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3 보통이다, 2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학부모 설문(글쓰기면) :** ①<sup>26)</sup> 아이가 글쓰기에서 자신감이 늘었다. ② 자신감을 가지고 내 생각을 쉽게쉽게 써내려 가는듯하다. ③ 글을 쓰는 것에 대해 많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④ 좀더 생각 폭이 넓어졌습니다. ⑤ 아이가 글쓰기에 좀더 거부감을 가지는 거 같지만 일단 쓰기 시작하면 내용을 잘 쓴다. ⑥ 쓰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다가, 스스로 무언가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뿌듯한 자신감 ⑦ 책 한권을 혼자서 한번 써 보고 싶어하는 것 ⑧ 자신감 상승

**편집후기 :** ⑥ 처음 ‘책 쓰기’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걱정이 되었는데, 글쓰기를 하면서 내 글 솜씨도 늘고, 또 내가 쓴 글이 진짜 책에 들어간다고 하니 놀라웠다. 글쓰기를 하며 맨 처음 시작, 끝마무리가 제일 어려웠다. 글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내 스스로 훌륭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또한 서술형 학부모 설문을 통해 봤을 때도 학생들이 책 만들기 활동을 통해 달라진 점을 분석해 보면 단연 자신감의 상승을 꼽을 수 있다. 글쓰기 측면에서는 월등히 자신감이 상승하였고, 자신이 혼자서 책 한 권을 써보고 싶다고 말한 경우도 있으며 글쓰기 뿐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자신감 상승이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편집후기에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웠지만 해냈다는 것에 대견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책 만들기는 자신감 상승으로 인한 자기 긍정의 효과까지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부모 설문(생활면) :** ② 눈물이 많은 아이가 하고 싶은 말들을 꼭지에 적어서 전해준다. ④ 엄마 아빠와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친구들과 더 잘 어울립니다. ⑤ 책 만들기 전보다 책에 관심을 갖고 남들 앞에 나서는 것에 좀더 당당해졌다. ⑥ 글쓰기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 스스로 해내는 책임감. ⑦ 말이 많아졌다.

**편집후기 :** ⑧ 사실 나는 쓰기를 엄청 싫어한다. 처음에 책 만들기를 한다

26) 이는 협동글쓰기에 대한 서술형 설문 결과이다. 지금부터 인용하는 설문의 ①~⑤는 저학년 학생의 답변이며 이 중 ①~③은 여학생 답변, ④, ⑤는 남학생의 답변이다. ⑥~⑧은 고학년의 답변이고, ⑥, ⑦은 여학생, ⑧은 남학생의 답변이다.

고 했을 때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지만 쓰기 시작하니까 얼마든지 재미있게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는 매력에 빠져버렸다. 두려움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걸 글쓰기를 시작하는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말이 많아지거나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전달하는 것, 엄마 아빠와 좀더 가까워진 것, 책에 관심을 갖고 남들 앞에 서는 것이 당당해지는 것 등을 볼 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됨도 알 수 있다. 또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책을 썼다는 데 대한 뿌듯함을 느끼며, 부드럽고 긍정적인 정서 변화를 보이고, 침착한 사고를 하게 되는 등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보인다. 생활면에서는 친구들과 더 잘 어울리는 변화를 보이는데 이는 협동글쓰기 과정에서 보이는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체 의식형성과 갈등 해결 능력 향상과 관계가 있다. 편집후기에도 처음에는 두려웠던 글쓰기가 재미있는 글쓰기로 긍정적 변화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 2. 인지적 효과와 글쓰기 능력 함양

책 만들기는 과학관이나 미술관 등 자신이 쓸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능동적으로 자료를 찾아 나서게 함으로써 자율적인 학습 태도를 잡아가고 글쓰기뿐 아니라 다른 학문과의 융합에도 기여한다.

**학부모 관찰일지 :** ⑥ 평소에도 미술에 관심이 많은 아이이긴 하지만 단순히 그림을 그리거나 꾸미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책 만들기를 계기로 전시회를 다녀오면서 글과 관련되는 책이나 인터넷 자료들을 검색하면서 스스로 감상의 폭을 넓혀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⑦ 요즘은 학교에서 글쓰기 대회를 하면 무조건 \*\*이가 다 맡아온다. 상을 받기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글쓰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다. ⑧ 좋아하는 대구과학관에 가자고 했다. 집에 오자마자 과학책을 꺼내 화학, 물리, 일과 에너지, 빛과 파

장, 자서, 지구과학, 생물로 나누어 보니 책만으로도 자료가 많았다.<sup>27)</sup>

**학부모 설문(글쓰기면) :** ④ 좀더 생각 폭이 넓어졌습니다. **(정서면) :** ③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침착하게 사고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⑧ 차분해짐 **(생활면) :** ③ 책을 읽다가도 스토리를 추측하거나 분석하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자신감 ⑧ 서술형 평가의 요점을 알 수 있다.(글의 요지)

**수업일지 :** 원고를 써나가고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책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스스로 자료를 찾는 모습이 이전 습관화가 되었다.(2011. 6.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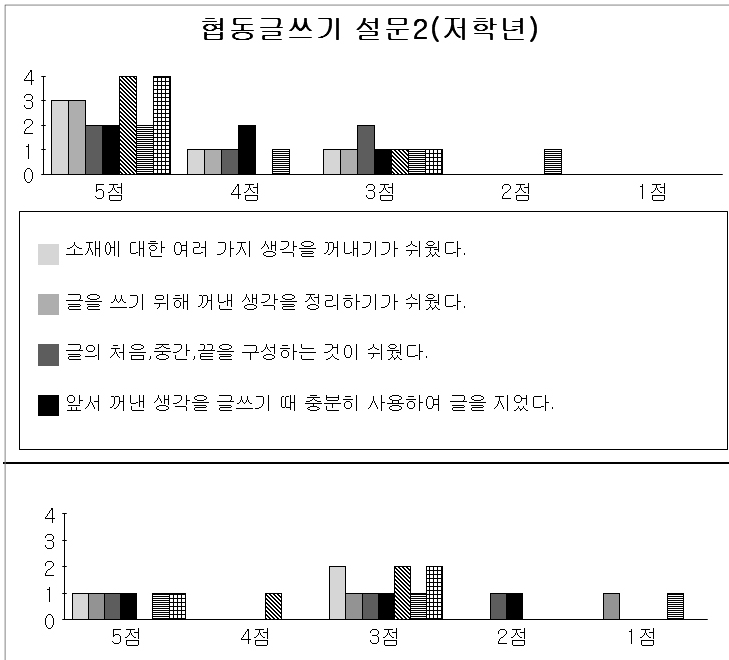
\*\*이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아이가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상을 타는 일도 종종 있고, 글쓰기에 자신감이 많이 생겨 자신이 자원해서 나가는 경우도 많아져서 아주 뿌듯하다고 한다.(2011. 9. 14)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침착하게 사고하는 습관이 생긴 점,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침착하게 사고하는 점은 책 만들기를 통해 사고력의 향상까지도 이어지고, 책을 읽다가도 스토리를 분석하면서 읽는 점이나 글의 요지를 알 수 있는 점은 책 만들기가 인지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음을 증명한다. 이는 자신이 주체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수업일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27) 동행325, 앞의 책, 꿈과 희망, 2012, pp.276~289.

〈표 4〉 협동글쓰기 설문 검사지2(저학년/고학년)



위 설문은 협동글쓰기가 아이디어 생성, 조직, 구성에 효과가 있으며 비유나 창의적 표현에도 효과적이며 고쳐쓰기 과정에서 미리 독자의 반응을 생각하는 점에서도 효과적이라 결과적으로 글쓰기 능력 향상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학부모 관찰일지나 수업일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저학년에서 더 효과적이다.

### 3. 저작권 의식의 강화

책 만들기는 비교적 장문 글쓰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원고를 완성할 수 있을지 여부도 중요한데 이에 대해 학생들은 협동글쓰기를 통한 책 만들기가 개별글쓰기보다 훨씬 끝까지 원고를 완성할 가능성이 많다고

답하였다. 이는 서로 의견을 맞추어야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조연자 역할을 할 수 있고, 같이 하는 즐거움이 있어 끝까지 원고를 완성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또 내가 빠지면 다른 학생들의 원고에도 영향을 주어 전체를 완성하지 못하게 한다는 책임감의 작용도 크다. 이는 자연스럽게 저작권 의식의 강화로 이어진다.

**학부모 관찰일지 :** ②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는 책이니 틀린 내용이 들어가는 안 된다고 꽃전설이나 꽃말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 책을 읽어 보기도 하고 검색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정해 글을 쓰면 좋을지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다.

**학생 설문 :** 4) 개인글쓰기 작품과 협동글쓰기 작품, 협동 책 만들기 작품 중 책을 끝까지 마무리해야하는 책임감과 내 글이라는 자부심이 큰 것은 어느 쪽입니까? ① 책 만들기. 내 이름이 적힌 책이니까 ② 협동책 만들기. 내가 빠지면 다른 친구들이 완성할 수 없으니까 ③ 협동책 만들기. 같이 하지만 나 혼자 쓰는 원고 부분도 많기 때문에 ⑥ 개인글쓰기. 나만의 작품이 될 수 있으니까. ④⑦⑧도 협동 책 만들기

**수업일지 :** ① 여러 사람이 한 권의 책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주었을 때, 아이들은 “내 책이 서점에서 팔리나요?”, “친구들에게 자랑해야지.”라는 반응을 보였다.(2010. 12. 2) ④ 뒷부분 원고 쓰기가 꽤 많이 진행되었는데 이야기가 끝날 줄을 모른다. 책 만들기가 힘들다고 하던 아이들이 오히려 자신의 원고 분량에 대한 욕심을 내며 이야기를 자꾸만 이어가고 있다.(2011. 6. 29) ⑥ 아이는 다음 책 만들기 때에는 혼자서 책 한 권을 써보고 싶다고 말했다.(2011. 9.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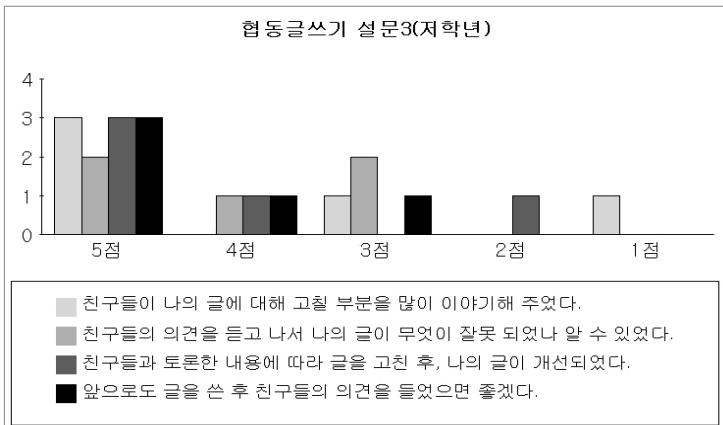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책이 나온다는 사실에 자기 작품에 대한 애착이 더욱 강해지고 처음에는 양이 많다고 하던 학생들이 나중에는 더 많이 쓰기 경쟁을 할 정도로 바뀐다. 그것도 양에 차지 않아 혼자서 책 한 권을 쓰고 싶다는 학생도 나오는 것은 저작권에 대한 의식 강화

로 볼 수 있다. 학생 설문의 경우도 협동책 만들기에 대한 긍정도가 월등한데 이것이 협동글쓰기와 협동글쓰기를 통한 책 만들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다. 그냥 단편적인 작품을 써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과 비교적 장문의 글을 써서 한 권의 책으로 완성하는 것은 차이가 있고 책의 저자라는 것에 큰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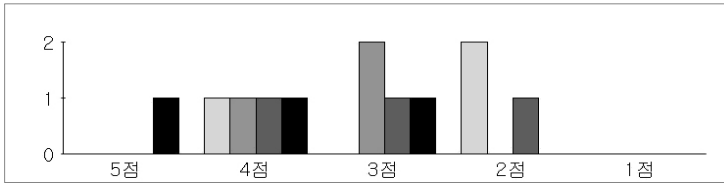
#### 4. 좋은 글에 대한 감식력 강화

협동글쓰기의 또 하나 큰 장점은 바로 고쳐쓰기 과정이다. 개별글쓰기의 경우는 고쳐쓰기 과정도 혼자서 끝이지만 협동글쓰기는 팀원이 내 글의 독자가 되어주기 때문에 항상 독자의 반응을 의식하게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좋은 글을 구별하는 감식력이 강화되기 마련이다.

〈표 5〉 협동글쓰기 설문 검사지3(저학년/고학년)







협동글쓰기 후 단계에서도 저학년이 훨씬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학년은 8번, 10번 문항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는데 이는 아직 글쓰기의 기초적인 부분이 부족한 저학년에서는 문법적인 표현이나 황당하지만 창의적인 발상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지만 고학년에서는 논리적인 판단이 앞서면서 이러한 부분이 감소하는 것이 원인이 되지 않나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앞으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답하였는데 이는 9번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고쳐 쓰기 과정에서 좋은 글에 대한 감식력이 향상됨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① 그래 근데 나 살아있나 너 재정신이야. 알겠다 자 이제 어디에 갈까 그냥 피자공장으로 가자 그래 야 근데 피자에 햄이 안들어 가고 왜 오이가 들어갔어?글썸다 피자 완성 와 맛있겠다 (2011. 3. 3)

② “당연히 살아있지. 너 재 정신이야? 괜찮니? 정말 힘들었나 보네. 자 이제 어디에 갈까? 그냥 피자공장으로 가자.”/ “그래, 근데 피자에 햄이 안 들어가고 왜 오이가 들어갔어?”/ “글썸다.”/ 피자를 만들 때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반죽은 알맞게 잘 주물러야 하고, 맛있도록 여러 가지 재료를 골라서 넣고 타지 않게 잘 구워야 합니다./ “피자 완성! 와! 맛있겠다.”(2011. 11. 3)

위 학생의 경우 저학년 남학생인데 친구들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주면 많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들어 협동글쓰기가 더 효과적이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대화글과 평서문의 구분이나 이야기 전개구체화 없이

빠대만 빠르게 진행하는 식으로 글을 써서 다른 학생들이 난감해 했었다. 여러 차례의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글쓰기 실력이 가장 많이 향상된 학생이기도 하다.

① “가로질러서 가라고 했는데……”/ 헤르미온느와 엔젤은 바로 옆에 있는 학생에게 길을 다시 물었다.(2011. 3. 8)

② “가로질러서 가라고 했는데……”/ 엔젤은 혼자말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돌려보았다.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몰래 쫓아다니던 다크에이원 조직의 하수인들을 들켰을까봐 얼른 고개를 숨기며 숨었다. 다행히 엔젤은 아무렇지 않게 엄마 헤르미온느를 따라갔다. 한참을 찾다가 힘이 들어서 잠시 쉬었다./ 헤르미온느와 엔젤은 바로 옆에 있는 학생에게 길을 다시 물었다.(2011. 3. 12)

③ “가로질러서 가라고 했는데……”/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엔젤은 혼자말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돌려 주변을 빙 둘러보았다./ 그 때 시크릿 제임스의 보물을 찾기 위하여, 몰래 이들의 뒤를 쫓아오던 누군가가 있었다. 그 중에 한 명은 키가 크고 시계를 찾으며, 다른 한 명은 키가 작고 뚱뚱했다. 또 올림머리를 한 여자도 있었다. 몰래 뒤를 따르던 그들은 정체가 들켰을까봐 얼른 고개를 숨기며 숨었다. 그리고는 벗었던 모자를 다시 썼다. 그들은 계속해서 엔젤과 헤르미온느 뒤를 따라다녔다./ 헤르미온느와 엔젤은 바로 옆에 있는 학생에게 길을 다시 물었다.(2011. 11. 3)

앞의 작품은 초고와 마지막 완결 원고를 비교해 보면 분량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는 고쳐쓰기가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진 결과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글을 쓴 한 학생의 단독적인 판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전체 동화를 구성해 가면서 이야기의 중간중간에 범인을 등장시키는 것이 더 긴장감이 있겠다는 팀원들의 의논 결과에 따라 수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좋은 글에 대한 감식력의 강화로 글의 연결이 안 되거나 전체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이 나올 때는 적극적으로 다른

팀원들이 이를 저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바 글의 통일성 있는 전개를 위해서도 협동글쓰기 방법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 5. 협동글쓰기를 통한 책 만들기의 역효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동글쓰기를 통한 책 만들기는 글쓰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강화, 인지적 효과와 글쓰기 능력 향상, 저작권 의식의 강화, 좋은 글 감식력 강화의 효과를 갖는다.

개별글쓰기가 안 되는 학생의 경우에 협동글쓰기가 더 효과적인 반면, 아이디어 생성이나 개별글쓰기를 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학생의 경우 협동의 과정에서 타협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에 대해 오히려 불만이 있었다. 실제로 협의의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던 고학년의 경우가 저학년보다 설문 결과에서도 전반적으로 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이처럼 협동글쓰기는 협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글쓰기나 책 만들기 전반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협동글쓰기를 통한 책 만들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구성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타협이 중요하다.

## IV. 책 만들기의 개선방안

본 연구에서는 협동글쓰기를 통한 책 만들기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기존 책 만들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앞서 연구에서도 보여주었듯이 초등학교생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글쓰기나 책 만들기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의 해소를 위해 평

소 학급에서 글쓰기 활동을 통해 짧은 글이라도 함께 묶어 문집으로 발표하는 기회를 자주 갖게 해야 한다.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책 만들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학생들의 책 만들기 참여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책 만들기 활동의 의의와 목표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시켜야 한다. 또한 책 만들기를 경험한 학생들을 초청하여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활성화해야 한다.

세 번째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책 만들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경험을 소재로 글을 쓰게 하여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도 좋겠고, 중도 포기 방지를 위해 협동글쓰기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네 번째로 책 만들기의 대상을 같은 학년 또래로만 한정하지 말고, 선후배나 가족이 함께 하는 책 만들기를 통해 소통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다섯 번째, 책 만들기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예술의 일종이므로 이를 지도하는 교사의 역량이 크게 좌우할 수가 있다. 책 만들기를 한 교사의 경험을 토대로 적합한 형태의 교사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 번째, 책 만들기 활동은 도서관과 학생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책의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만들고자하는 책의 양식을 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도서관과 연계한 책 만들기 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학생들이 책 만들기 활동을 통해 독서가 즐겁고 재미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여 창의적 글쓰기로 연결되어야 한다.

## V. 결론

본 연구는 협동글쓰기를 통한 책 만들기의 교수-학습의 단계와 절차를 모형화시키고, 이를 실제 책 만들기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탐색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를 협동글쓰기의 방법으로 『따로 또 같이』라는 책을 출판했던 저학년과 고학년 학생 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협동글쓰기를 통한 책 만들기는 첫째, 글쓰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강화시킬 수 있다. 책 만들기를 통해 글쓰기에 대한 흥미를 향상시키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책 만들기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조직하는데 효과적이며 이는 글쓰기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또한 자료를 검색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인지적인 효과가 향상되고, 사고력· 창의력은 물론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으로까지 이어진다. 셋째, 협동이라는 방법에 의해 집단의 소속감을 강화하여 책 만들기는 원고를 끝까지 완성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효과적이며, 책으로 만들어진다는 책임감이 저작권 의식의 강화로 이어진다. 넷째, 협동을 통한 상호작용의 과정을 거치면서 좋은 글에 대한 감식력의 강화도 나타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양하게 분석하여 기존 책 만들기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평소 학급에서 글쓰기 활동을 통해 짧은 글이라도 함께 묶어 문집으로 발표하는 기회를 자주 갖게 하여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 둘째, 책 만들기를 경험한 학생들을 초청하여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활성화하여 책 만들기 참여 동기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책 만들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넷째, 책 만들기의 대상을 같은 학년 또래로만 한정

하지 말고, 선후배나 가족이 함께 하는 책 만들기를 통해 소통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다섯째, 교사의 책 만들기 역량강화를 위해 책 만들기를 경험한 교사를 토대로 적합한 형태의 교사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도서관과 연계한 책 만들기 활동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책 만들기 활동을 통해 독서가 즐겁고 재미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여 창의적 글쓰기로 연결되어야 한다.

물론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 책 만들기에 참여한 도시 지역 어린이들로 한정하고 소단위 그룹으로 진행하였으므로 다른 학년이나 시골 지역 어린이들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협동글쓰기를 통한 책 만들기 지도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여러 방면에서 효과가 있었으므로 본 연구를 계기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책 만들기 인구의 저변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1. 자료

- 손동욱, 『우리도 어엿한 작가』, 영남일보, 2009. 12. 10.  
채정민, 『창의력 향상 학생 책 쓰기 활동 대구시교육청 대표브랜드 우뚝』, 매일신문, 2012. 7. 10.  
한준희, 『책쓰기 교육의 의의와 과정』, 『2010년도 도서관 활용 직무연수』, 대구 계명대학교 사범대학부설 중등교육연수원, 2010. pp.135~162.

### 2. 단행본

- 고영만, 『정보문해론』, 서울 도서관협회, 2005.  
김영채, 『창의적 문제 해결 : 창의력의 이론, 개발과 수업』, 교육과학사, 2002.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저자 10만 양성을 위한 2010 독서 동시 쓰기 책쓰기 교육 기본계획』, 대구광역시교육청, 2002.  
동행325, 『따로 또 같이』, 꿈과 희망, 2012. pp.11~295.  
린다 플라워, 『글쓰기의 문제해결전략』, 동문선, 1998. p.31.  
박범익, 『창의성, 네 머리를 깨워라1』, 산소리, 2007.  
박정아와 안미정, 『생각이 자라는 즐거운 책 만들기』, 서울, 예경, 2006.  
윤길근·강진영,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육방법』, 문음사, 2004.  
윤길근 외, 『교육방법론』, 태영문화사, 2005.  
윤종건, 『창의력의 이론과 실제』, 원미사, 1998.  
폴 존슨, 『북아트를 통한 글쓰기』, 서울 : 아이북, 2005, p.10.

### 3. 논문

- 권경미, 『북아트(Book Art)를 활용한 글쓰기 활동의 효과 연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9.  
김정섭, 『또래협력이 아동의 추론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p.33~36.  
김중성, 『자기주도적 탐구학습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대구광역시교육청의 책쓰기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제 41권, 2호, 2010, pp.82~89.  
노영희·유수옥, 『스케폴딩 전략을 적용한 그림이야기책 만들기 과정에 나타난 유아

- 의 반응』, 『유아교육학논집』, 제14권 제5호, 2010. pp.261~286.
- 문혜경, 『협동학습을 통한 작문지도 방법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p.21~25.
- 변윤희, 『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그림책 만들기 활동의 효과 연구』, 『교육학연구』, 제44호, 2006. pp.27~55.
- 성숙자, 『협동 작문의 유형과 개선점』, 『우리말연구』, 제13집, 2003, pp.176~177.
- 송재림, 『협동 작문의 효과성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심옥화,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 『창의력 교육연구』, 1997.
- 오택환, 『협동 작문이 쓰기 능력과 쓰기 태도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과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p.42
- 이경화 · 최병연, 『초등학교 저학년의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분석』, 『창의력교육연구』, 제8권 제2호, 2008.



**Abstract**

## The Collaborative Writing-based Guidance and Effect Plans for Book-Making

Choi, Sun-nyu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for the student writers who published the book namely "Alone Together" by using the collaborative writing as the participants in the Book Writing Project by Daegu Education Office aiming at producing 100 thousand student writers.

The 1st chapter of this study includes the necessity and research way of guidance plans in book writing through collaborative writing. The 2nd chapter includes ways for the students to understand of collaborative writing based -book making and designing of guidance models, all of which were based for the suggestion of the guidance steps. The 3rd chapter includes the analysis of the results of and effect and discussion over the collaborative writing based-book writing application and the analysis on the change through the questionnaires for the participants students and their parents, teachers and school parents' daily records on their observations and editors' comments. The chapter 4 includes the discussion over its improvement ways of the collaborative writing based-book writing and the discussion was summed up and came to the finish in the 5th chapter.

Key words : Collaborative writing, Writing, Book-making, Book writing, Group storytelling

최선녀

소속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소 : 대구 달서구 용산동 956번지 동서우방 102동 201호

전화번호 : 053-564-1620, 010-5667-1602

전자우편 : gil275@naver.com

이 논문은 2013년 2월 28일 투고되어  
2013년 4월 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4월 8일 게재 확정됨.